

## 金屬製 鳥羽飾에 對한 研究

- 古新羅, 加耶古墳 出土品을 中心으로 -

金 文 子

水原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 A Study on the Metal Feathered Trim

- Focusing on the Excavated Articles from the Old Tombs in Ancient Silla, Gaya -

Moon Ja Kim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Metal Feathered Trim in old tombs.

First, Feathered Trim is 5 types, Feathered Trim I-A, Feathered Trim I-B, Feathered Trim II-A, Feathered Trim II-B, Feathered Trim II-C in according to upper part of central insert plate style.

Feathered Trim I-A, I-B, II-B type was general style that was found in most of the old tombs in ancient Silla, Gaya. Feathered Trim II-A type was excavated from the only Silla tombs and II-C type was excavated from Gaya tombs.

Feathered Trim I-A type was worn previous to I-B type, and II-B, C type was worn previous to II-A type.

Feathered Trim 5 types was influenced by the scythe style that was 'Scythe-shaped' tail.

### I. 序 論

우리나라에 있어서 鳥羽飾(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東明王篇〉에 나오는 夫餘의 始祖 解慕漱에 대한 서술이다. 즉 ... 머리에 鳥羽의 冠을 쓰고 허리에는 龍光의 칼을 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sup>

최초의 鳥羽冠의 착용자로 기록된 해모수는 그 신화의 성격상 샤만의 역할을 겸한 제정일치적 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며 鳥羽를 冠에 插植하는 풍습은 유목민의 조류송배사상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도 鳥羽冠에 대한 古記錄과 고분 벽화에도 鳥羽冠을 착용한 인물들을 볼 수 있다.

백제에 있어서는 조배제사시에만 鳥羽冠을 착용한다는 기록은 鳥羽飾이 상징하는 샤만적 巫具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sup>2)</sup>

그런데 본 研究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金屬製 鳥羽飾은 아직까지 高句麗, 百濟지역에서는 出土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論文에서는 주로 古新羅, 加耶지역 출토 품들만을 가지고 樣式 分類를 하였다.

선행연구<sup>3)</sup>에서는 우리나라 鳥羽冠(飾)의 源流를 밝히기 위한 研究의 선행작업으로써 고분출토 조우식 전반에 걸친 대략적인 양식분류를 해 놓은 것에 그친 관계로 본 論文에서는 각각의 樣式에 따르는 각 鳥羽飾들의 보다 상세한 형태 考察과 아울러 古墳 編年에 따른 鳥羽飾 樣式的 발전 단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 鳥羽飾들의 樣式 分類를 통해서 時代別 先後관계 및 각 鳥羽飾을 착용한 인물 등의 範疇등을 알아보는데에 研究의 目的 및 意義가 있다.

(1)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弁形帽 형태의 母(帽)부에 鳥羽飾을 插植하고 있는 전형적인 鳥羽冠의 형태로 출토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수의 출토품들은 鳥羽飾만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 연구는 주로 插植되고 있는 鳥羽飾을 중심으로 樣式 分類를 하였다.

(2) 研究範圍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고분 출토품 즉, 주로 고신라, 가야 고분출토 鳥羽飾만을 양식분류 하였으며 아울러 이같은 양식들의 원류를 밝히는데 필요한 고구려 고분 벽화 인물도등을 비롯한 여러 고증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II. 鳥羽飾의 樣式 分類

古墳에서 출토되고 있는 鳥羽飾의 遺例를 보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古新羅, 加耶 古墳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태에 따라 크게 세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심꽃이飾<sup>4)</sup>에 좌우 양날개가 부착된 鳥羽飾 「: 조우식 I」

둘째, 좌우 양날개없이 중심꽃이飾만으로 구성된 鳥羽飾 「: 조우식 II」

셋째, 變形 鳥羽飾

그런데 變形 鳥羽飾은 양식 분류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둘째 양식만을 분류하여 그 형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조우식은 원래 弁形帽인 母部에 插植되어 조우관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나 모부인 변형모가 금속제가 아닌 경우 소실되어 없어지고 조우식만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sup>5)</sup> 母部인 金屬製 弁形帽에 鳥羽飾이 插植되어 출토된 경우라도 본 연구에서는 삽식된 조우식의 형태만을 양식 분류하였다.

이들 중심꽃이飾이 있는 鳥羽飾들은 대개 그 상부의 구조가 弧形의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심꽃이飾 상부의 구조가 'VVV' 「: 꺾인 측면에서

보면 W모양 입<sup>6)</sup>이나 'W'는 'VV'모양을 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같은 동일한 형태의 양식은 後述할 'Scythe-shaped' tail 樣式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보이며 고분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보이므로 研究者는 이 形態를 樣式 分類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중심꽃이飾에 좌우 양날개가 부착된 조우식 I이면서 중심꽃이飾의 상부 모양이 'VVV'인 경우는 조우식 I-A식, 'W'인 경우는 조우식 I-B식으로 나눌 수 있다. 양날개 없이 중심꽃이飾 만으로 이루어진 조우식 II의 경우도 상부의 구조가 'VVV'인 경우는 조우식 II-A식, 'W'인 경우는 조우식 II-B식, 'VV'인 경우는 조우식 II-C식으로 나눌 수 있어 모두 5가지 양식, 즉 조우식 I-A식, 조우식 I-B식, 조우식 II-A식, 조우식 II-B식, 조우식 II-C식으로 나눌 수 있다.

### 1. 조우식 I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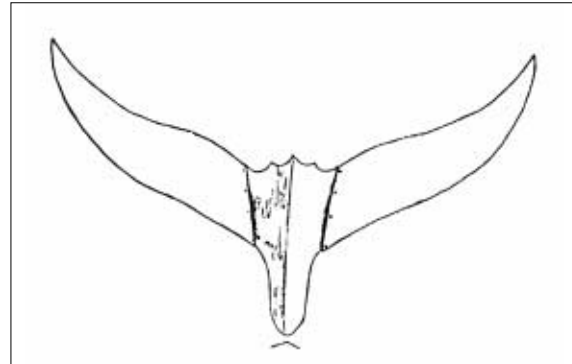
#### 1) 조우식 I-A식

古新羅 慶州 金冠塚出土 金製 鳥羽冠(그림 1)은 이것은 母部인 弁形帽에 전형적 鳥羽飾을 插飾한 호화로운 金製品이다. 母部인 弁形帽의 前半部는 鳥羽飾을 꽃을 수 있는 금판이 따로 삼각형, 凸字形으로 투착되어 붙어 있는데, 그 中央部分은 魚鱗文을 하고 있으며 後部는 前下部金板에 연결되어진 透作 장식판을 매달고 있다. 鳥羽飾은 꽃이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唐草文을 透作하고 중앙부에는 鳥羽部를 뜻으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200여 개에 가까운 원형의 小瓔珞이 달려있다.<sup>6)</sup> 동 고분 출토 金銅製 鳥羽飾<sup>7)</sup>은 前者와 달리 母部가 없이 조우식만 출토되었는데 형태는 前者와 비슷하나 약간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瓔珞도 달려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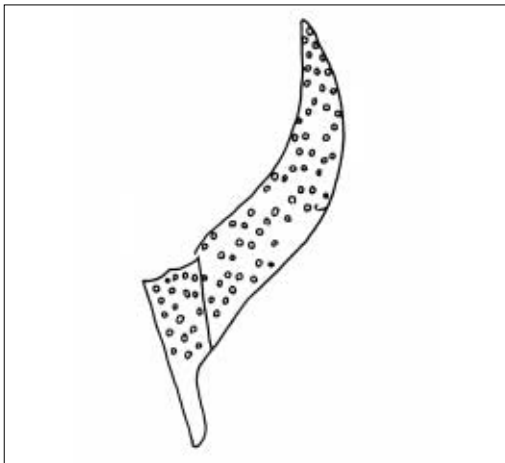
古新羅 皇南大塚 南墳에서는 금제, 은제, 금동제 모두 4점의 조우식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1점은 중심꽃이飾 상부의 모습을 복원해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3점은 모두 조우식 I-A식을 하고 있다. 먼저 金製品(그림 2)은 중심꽃이飾 양면에 활짝 편 새 날개 모양으로 오린 금판을 좌우에 각각 붙여서 구성한 것이다. 표면에는 직경 0.1cm의 금제 영락을 금사로 달았는데 중심꽃이飾에는 세로로, 날개는 가로로 계속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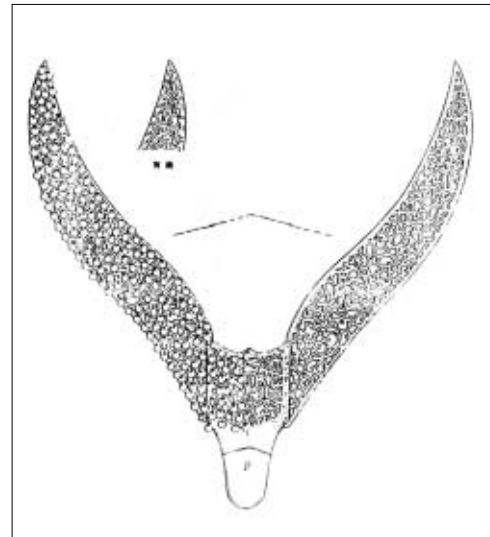
<그림 1> 금제 조우식 I-A식  
5C 중엽 고신라 경주 금관총 출토  
-慶州金冠塚及其遺寶



<그림 2> 금제 조우식 I-A식  
4C 중반-후반 고신라 황남대총 남분 출토  
-皇南大塚 II(南墳)發掘調査報告書



<그림 3> 금제 조우식 I-A식  
4C 전반 가야 의성탑리 제II묘곽 출토-의성탑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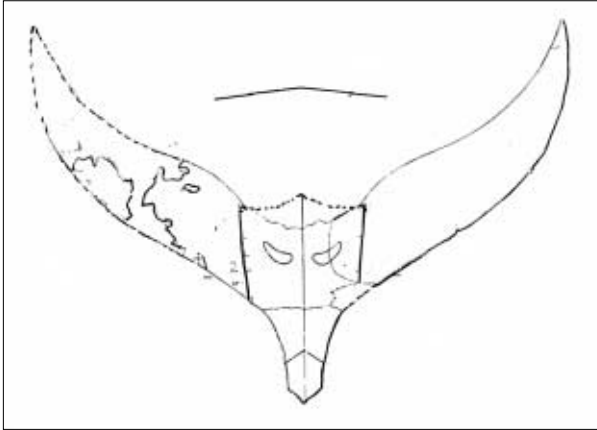


<그림 4> 금제 조우식 I-B식  
5C 말 고신라 천마총 출토 -天馬塚發掘調査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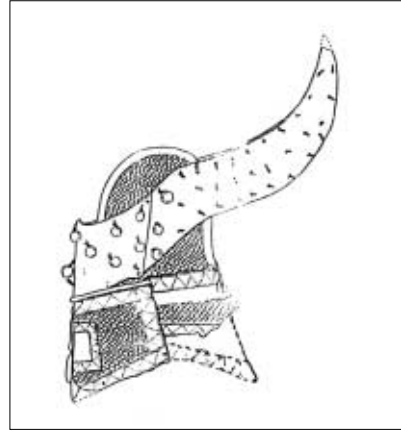
양 날개와 중심꽃이飾의 周緣에는 一列의 打出點列로 장식하였다. 銀製 鳥羽飾은 前者와 기본 구조는 같지만 英락은 전혀 달려 있지 않다. 翼飾의 곡선이 예리하고 동적이어서 활활 날아오르는 새 날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 같다. 나머지 금동제품은 중심꽃이飾의 상부가 많이 결실되었으며, 翼飾은 연결부의 일부만 남아 있다. 금동판의 周緣에는 一列 點線文만

이 打出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금동제 英락을 全面에 달았는데, 금사로 연결하여 부착하는 대신 1개씩 따로 따로 부착하였다.<sup>8)</sup>

加耶 義城塔里 第II墓槨出土 金銅製 鳥羽飾(그림 3)은 꽃이부분을 제외한 주위운곽에 打出한 點線文을 金銅製는 2줄 둘렀다. 그리고 많은 圓形環珞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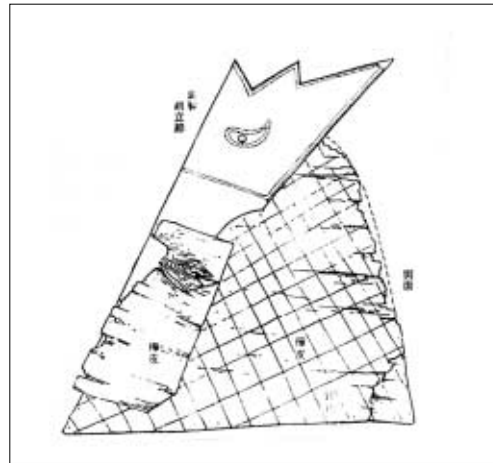
<그림 5> 은제 조우식 I-B식  
4C 말-5C 초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그림 6> 금동제 조우식 I-B식  
5C 말-6C 초 가야 양산 부부총 출토  
-梁山夫婦塚と其遺物



<그림 7> 6C 고구려 鎧馬塚 玄室西壁 人物圖  
- 韓國美術全集 4



<그림 8> 은제 조우식 II-A식  
5C 말-6C 초 가야 양산 부부총 출토  
-梁山夫婦塚と其遺物

## 2) 조우식 I-B식

古新羅 慶州 天馬塚出土 金製 鳥羽飾(그림 4)는 중심꽃이飾에 좌우로 날개를 작은 못 5개로 결착한 것으로 금판의 두께는 약 0.02cm 정도이다. 全面에 怪雲文을 透彫하고 약 400개의 직경 0.7cm 정도의 圓形瓔珞을 촘촘히 금사로 장식하고 있다. 透彫文은 모두 정

으로 袴刻하였는데 좌우가 동형은 아니다. 이 透彫文들은 裏面으로부터 보죽한 못을 대고 때려 만든 突點列로서 平行윤곽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약간 넓은 부분 周緣部는 平行선 내부에 波狀線 한 줄기를 넣고 있다. 또한 중심꽃이飾의 꼬다리에는 직경 0.5cm 정도의 쇠못이 꽃혔고, 裏面에는 7cm 정도 길이로 못끝이 남아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鳥羽飾은 樺皮冠 등의 목

질 같은 것에 단단히 장착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sup>10)</sup>

古新羅 皇南大塚 北墳 출토 은제 조우식(그림 5)은 양쪽 날개와 꽃이부분이 각기 다른 銀板을 오려서 붙인 것으로 날개는 좌우가 같은 모양이나 오른쪽은 거의 반가량이 부식되어 떨어졌다. 날개와 꽃이 상단부분은 은제 잔 못으로 박아 결합시켰고 꼬리부분 즉 부채꼴 가운데 꽃이를 제외하고 가장자리에는 두줄의 打出點列文을 돌렸다. 꽃이의 상단은 사다리꼴이고 하단은 부채꼴로 꽃이의 오른쪽 뒷면 상단에 “夫” 字, 오른쪽 뒷면 상단에 “X” 기호, 오른쪽 날개 뒷면에 “百” 字가 날카로운 도구로 刻字되었다. 부채꼴은 중심선을 양간 꺾어 접은 垂直突出線이 뚜렷하여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 되게 옆으로 하나씩 붙인 것 같은 모양이 押出되었는데 마치 사람의 눈과 같다.<sup>11)</sup>

이같은 眼狀文은 後述할 양산 부부총 출토 은제 조우식 <그림 8> 昌寧 校洞 11 號墳 出土 銀製鳥羽飾(그림 9)과 황남대총 북분 출토 은제 조우식(그림 10, 13) 등에서도 볼 수 있다.<sup>12)</sup> 이같은 眼狀文은 단순한 장식적인 문양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고대 각 민족 간에 있었던 邪視(EVIL EYE)적 思想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sup>13)</sup>

加耶 梁山夫婦塚 出土 金銅製 鳥羽冠(飾)(그림 6)은 母部는 金銅의 얇은 板을 2枚합해 그 주위에 테두리를 한 弁形帽 樣式이다. 하부후반에는 2매의 板金을 두르고 전반에도 長方形의 飾板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접혀져 후반의 판금 위에 겹쳐지고 있다. 後面 板金의 下緣에는 점선의 鋸齒文이, 正面飾板에도 그 윤곽에 연해 二重으로 鋸齒文이 새겨지고 기타의 부분에는 한 면에 魚鱗文이 장식되어 있다. 중심꽃이飾은 點線文을 새긴 金銅板으로 全面에 小瓔珞이 달려있다.<sup>14)</sup>

이상과 같은 조우식 의 金屬製 鳥羽飾은 고구려관계 고기록<sup>15)</sup>에 ‘金羽’로써 貴賤을 가리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原文에서는 ‘金羽’가 관에 加飾되었다는 설명은 없으나 고구려 고분 벽화 鎧馬塚 玄室西壁 人物圖(그림 7)에는 금속제 조우관의 착용모습이 보이고 있어 이는 바로 ‘금우’로 된 조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金羽冠을 비롯한 금속제 조우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착용하여 그들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마총 인물도가 착용한 鳥羽冠의 母部는 붉은 비단을 입힌 弁形帽이고 거기에 조우식 1식이 插飾된 것으로 추측된다. 鳥羽飾部分에는 瓔珞이 달려있는 모습이며, 고신라, 가야의 조우식 1식에 비해 크기는 작은 것으로 추측되어, 이같은 鳥羽冠은 高句麗에서 고신라·가야 등지로 넘어오면서 더욱 裝飾化되고 儀禮化된 것으로 짐작된다.

## 2 조우식 1식

### 1) 조우식 II-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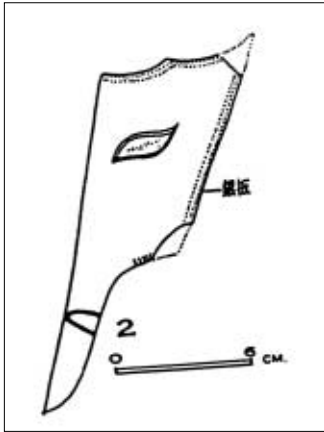
加耶 梁山 夫婦塚出土 金銅製 鳥羽冠(飾)(그림 8)은 樺皮로 만든 帽部인 弁形帽는 內面은 세로로, 外面은 가로로 2매 겹쳐 붙여서 그 표면에는 菱形의 斜行文을 새겼고, 주위에 針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테두리를 꿰매 붙인 것 같다. 正面下部에는 長方形 樺皮를 가운데 접어 꺾어 붙여서 그 속으로 鳥羽飾을 삽입하게 되어 있다.<sup>16)</sup>

銀製 鳥羽飾은 양날개 부분을 제외한 중심꽃이飾만을 삽입하고 있는데 상부의 모양이 좀 더 날카로운 VVV형태로 변하고, 전체적인 상하의 길이가 前述한 조우식 1식의 중심꽃이飾판보다 길어서 그 자체로도 충분한 立飾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중심꽃이飾 둘레는 點線文을 두르고 양쪽 중앙에는 눈(EYE)모양의 打出文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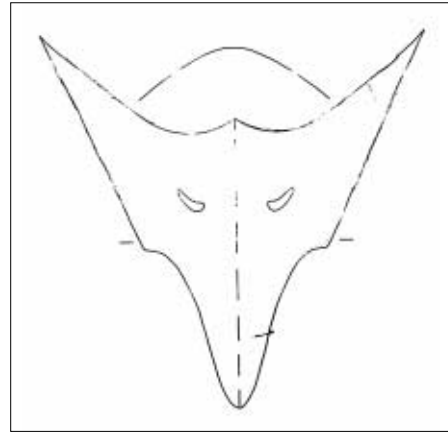
加耶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銀製鳥羽飾(그림 9)은 위쪽 양끝에 약간의 결함이 있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로 鳥羽飾 II-A에 속하는 것으로, 꽃이부분을 제외한 전체 둘레는 2줄의 點列文이 있고, 그 양쪽 중앙에는 眼狀文의 隆起가 있다.<sup>17)</sup>

### 2) 조우식 II-B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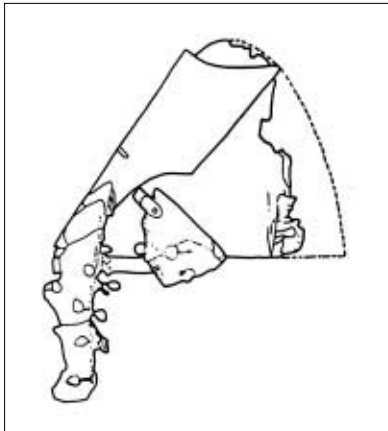
古新羅 皇南大塚 北墳 출토 銀製 鳥羽飾(그림 10)은 한 장의 은판을 오려서 만들었고, 오른쪽 날개 끝부분과 군데군데 부식되었다. 鳥翼形보다 날개가 짧고 날카롭게 솟아올랐으며 중심선을 안으로 꺾어 접어 垂直突出線을 나타냈다. 이 선의 조우로 曲玉모양의 눈이 對稱되게 突出되어 매우 매섭게 보인다. 가운데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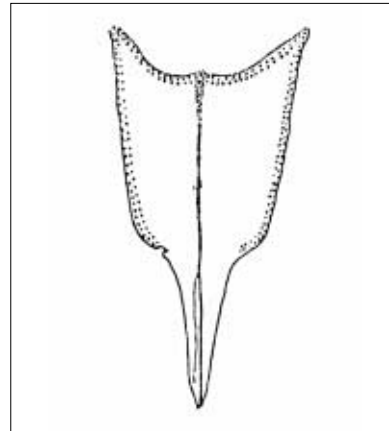
<그림 9> 은제 조우식 II-A식  
5C 후반-6C 가야 창령 교동 11호분 출토  
-昌寧校洞古墳群



<그림 10> 은제 조우식 II-B식  
4C 말-5C 초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그림 11> 금동제 조우식 II-B식  
4C 전반 가야 달성 비산동 제 37호분 제 II곽 출토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그림 12> 은제 조우식 II-B식  
4C 전반 가야 성주 성산동 제 1호분 출토  
- 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두줄의 打出 點列文을 가장자리에 돌렸다.<sup>18)</sup>

加耶 達城 飛山洞 37號墳 第II槨 出土 鳥羽冠(飾)(그림 11)은 약간의 결함이 있으나 前述한 梁山夫婦塚出土品과 同一한 樣式의 白樺樹皮製 弁形帽로 되어 있다. 金銅製 小瓔珞이 달린 裝飾으로 보이는 殘欠은 가장자리를 가위로 오려놓은 것 같은 羽毛狀을 만들고 다시 그 하나하나를 두서너 번씩 꼬아 놓았다.<sup>19)</sup>

星州 星山洞 第1號墳 出土 銀製 鳥羽飾(그림 12)은 은의 薄板으로 만들었고, 중앙은 꺾여 있으며 嘴狀을 하고 있다. 周緣에는 2줄의 連點文을 장식하고 있다.<sup>20)</sup>

### 3) 조우식 II-C식

古新羅 皇南大塚 北墳 出土 銀製 鳥羽飾(그림 13)은 꽃이부분과 몸통의 일부만 남아 있고 날개부분은 모두 부식되어 있다. 前述한 동 고분 출토 <그림 10>과

거의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졌으나,<sup>21)</sup> 일부 남아 있는 형태를 복원 해본 결과 중심꽃이飾 상부의 모습이 조우식 II-A, B식들과는 달리 'VV' 모양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중심꽃이飾만을 꽃은 조우식 II식은 조우식 I식에서 양날개 부분을 제외한 간편한 조우식으로 고신라, 가야지역에서 주로 여인용 관모로 애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종래의 鳥羽冠은 남자의 전용물로 생각했으나 고신라 皇南大塚 北墳은 南墳의 夫君에 대한 婦人의 묘곽으로 피장자가 여인임이 확실한데 여기서서는 물론 조우식 I식도 출토되었지만 조우식 II식이 2개 출토되고 있어 이같은 중심꽃이飾만을 插飾하는 보다 간편한 조우관은 여인들에게 더 애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22)</sup>

### III. 鳥羽飾의 古墳編年에 따른 分類 및 源流

#### 1. 古墳編年에 따른 分類

이상의 鳥羽飾의 양식 분류를 출토 유물의 古墳 編年<sup>23)</sup>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신라, 가야의 고분 출토품에 대해 고분 편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날개가 달린 조우식 I식은 중심꽃이飾만으로 이루어진 조우식 II식에 비해 가야 지역보다는 고신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조우식 I식에서 좀 더 간편하게 양날개를 제외한 조우식 II식이 후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실지로 가야 양산 부부총 유물에서 두 종류의 양식이 동시에 출토된 것으로 보아 두 양식의 고분 편년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양식의 간편함에 따라 前述한 것과 같이 조우식 I식은 주로 남자들이 조우식 II식은 여자들이 애용하면서 동시대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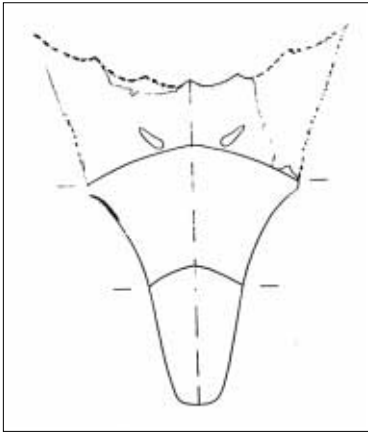
고신라, 가야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양식은 조우식 I-A식, 조우식 I-B식, 그리고 조우식 II-B식이다.

한편 조우식 I-A식은 4C전반에서 5C 중엽까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조우식 I-B식은 4C말에서 6C 초까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어 고분 편년에 따르면 조우식 I-A식이 먼저 착용되었던 양식이라고 추측된다.

조우식 II식은 가야지역에서 더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조우식 II-A식은 가야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조우식 II-C식은 고신라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유물의 숫자가 적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조우식 II-A식은 5C후반에서 6C까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고, 조우식 II-B식은 4C전반에서 5C초까지의 고분에서, 조우

<표 1> 古墳編年에 따른 鳥羽飾 양식 분류

조우식 양식		고 분 명		추정 년대
조우식 I식	조우식 I-A식	고신라	경주 금관총(금제, 금동제)	5C 중엽
			경주 황남대총 남분(금제, 은제)	4C 중반~후반
	가 야	의성탑리 제 II묘곽	4C 전반	
	조우식 I-B식	고신라	경주 천마총	5C 말
		경주 황남대총 북분	4C 말~5C 초	
조우식 II식	조우식 II-A식	가 야	양산 부부총	5C 말~6C 초
			창령 교동 제 11호분	5C 후반~6C
	조우식 II-B식	고신라	경주 황남대총 북분	4C 말~5C 초
		가 야	달성 비산동 제 37호분 제II묘곽	4C 전반
		성주 성산동 제1호분	4C 전반	
	조우식 II-C식	고신라	경주 황남대총 북분	4C말~5C초



〈그림 13〉 은제 조우식 II-C식  
4C 말-5C 초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그림 14〉 'Scythe-shaped' tail 양식  
Pazyryk barrow 1 出土 -Frozen Tombs of Siberia



〈그림 15〉 금동제 鳥形 冠裝飾  
고구려 평북 운산 용호동 1호분 출토 -韓國美術全集 2

식 II-C식은 4C말에서 5C초까지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출토 유물로만 고찰하면 조우식 II-B, II-C식이 조우식 II-A식보다는 먼저 착용되었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 2 鳥羽飾의 樣式 源流

鳥羽冠의 着用 遺例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북방 모든 민족간에 널리 행해지고 있던 풍습이다. 鳥羽插植의 풍습은 북방유목민족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 유목적 수렵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땅에 떨어진 아름다운 새의 깃을 주워 머리에 꽂은 것이 鳥羽冠의 기원일 것이나, 그것은 조류승배사상에서 오는 샤만적 의의가 더 크게 작용하여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한다.<sup>24)</sup>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自然鳥羽를 사용하다가 점차 裝飾化되고 儀式化되어 이러한 金屬製品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金屬製 鳥羽冠은 신분이 높은 사람

들만 착용하여 그들의 地位를 象徵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鳥羽冠의 착용 遺例을 살펴보면, 스키타이 칼집의 裝飾文에서 半人半獸인 弓手<sup>25)</sup>가 머리에 띠를 매고 鳥羽로 보이는 것을 꽂고 있다. Kelermes 古墳出土 金冠<sup>26)</sup>에서도 鳥形飾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鳥形飾은 Pazyryk barrow 2 出土 女性用 頭飾<sup>27)</sup>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鳥羽飾의 꼬리부분을 圖案化하면 〈그림 14〉와 같이 되는데 이같은 樣式을 'Scythe-shaped' tail이라 부르며<sup>28)</sup>, 이는 우리나라의 高句麗 冠裝飾으로 추정되는 〈그림 15〉에서도 볼 수 있어 그 源流를 짐작할 수 있다.<sup>29)</sup>

따라서 이같은 스키타이계통의 'Scythe-shaped' tail 양식이 고구려 관장식에서는 새꼬리 부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前述한 개마총 인물도의 조우관(그림 7)이나 고신라, 가야의 중심꽃이飾 上部의 대표되는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

이상으로 古墳 出土 金屬製 鳥羽飾들을 그 형태를 분류하여 그 樣式들을 古墳編年에 따라 考察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鳥羽冠에 自然鳥羽를 사용하다가 점차 裝飾化되고 儀式化되어 이러한 金屬製 鳥羽飾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金屬製 鳥羽飾을 꺾은 조우관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착용하여 그들의 地位를 象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古墳出土品에 나타난 금속제 조우식들은 母部에 꽃는 중심꽃이飾의 상부의 구조가 弧形의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심꽃이飾 상부의 구조가 'VVV' ʹ 꺾인 측면에서 보면 'VV모양 입'이나 'VV'는 'VV'모양을 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꽃이飾의 형태에 따라 5가지 양식, 즉 조우식 I-A식, 조우식 I-B식, 조우식 II-A식, 조우식 II-B식, 조우식 II-C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우식 I식은 조우식 II식에 비해 加耶 지역보다는 古新羅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두 양식의 古墳編年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우식 I식은 주로 남자들이 조우식 II식은 이 양식의 간편함에 따라 여자들이 애용하면서 동시대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古墳編年에 따르면 조우식 I-A식이 조우식 I-B식 보다 먼저 착용되었던 양식이다.

조우식 II식은 加耶지역에서 더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조우식 II-A식은 加耶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조우식 II-C식은 高句麗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출토 유물로만 고찰하면 조우식 II-B, II-C식이 조우식 II-A식보다는 먼저 착용되었던 양식이다.

이같은 조우식 I, II식에 사용된 중심꽃이飾 상부의 독특한 모양은 'Scythe-shaped' tail 양식이 표현된 것이며 高句麗 관장식에서는 새꼬리 부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古新羅, 加耶고분 출토 鳥羽飾의 중심꽃이飾 上部의 대표되는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古墳出土 金屬製 鳥羽飾의 양식분류는 주로 古新羅, 加耶지역만을 한정하여 고찰하였으므로 삼국시대 전반에 걸친 鳥羽飾의 양식 분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高句麗, 百濟 지역에는 金

屬製 鳥羽飾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벽화 인물도나 古記錄에는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까지 鳥羽飾의 樣式이 발견된다면 좀더 정확한 加耶를 포함한 三國에서의 金屬製 鳥羽飾의 상관 관계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 參考文獻

- 1) 李圭報, 李承休, 東明王篇. 帝王韻紀, 朴斗抱(譯), 乙酉文化社, 1974, p. 224. … 首戴鳥羽之冠腰帶龍光之…
- 2) 金文子,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민족문화사, 1994, p. 57.
- 3) 앞글, pp. 58-68.
- 4) 조우식의 가운데 母部에 꽃는 부위를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에서는 '基部', 「慶州의 金冠塚」, 「梁山夫婦塚及其遺物」에서는 '前立飾', 「天馬塚」에서는 '中央의 꼬다리 달린 四角形片', 「皇南大塚」에서는 '중심꽃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꽃이부분만을 가지고도 조우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研究에서는 "중심꽃이飾"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 5) 鳥羽飾을 꺾는 母部가 없이 조우식만 출토된 경우 이 조우식들은 실지로 사용되지 않고 明器로 쓰였을 것이라는 說도 있으나 <그림 1, 5, 8, 11>과 같이 母部에 조우식이 삽입되어 함께 출토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母部가 부패되기 쉬운 유기물질로 되어 있어서 썩어서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실제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濱田靑陵, 慶州의 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1932, pp. 24-30.
- 7) 慶州金冠塚及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

- 册, 朝鮮總督府, 1928, 圖版第60.
- 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Ⅱ(南墳)發掘調査報告書, 本文篇, 1994, pp. 74-75.
- 9) 金載元·尹武炳, 義城塔里古墳, 국립박물관, 1962, pp. 37-38.
- 10)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4, pp. 92-93.
- 1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p. 77-78.
- 12) 이외에도 眼狀文은 달서면 제34호분 제묘곽 출토 은제품과 창령 교동 89호분 출토품에서도 볼 수 있으나 전체형태를 알 수 없게 파손되어 있다.
- 13)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17, 1974. 12. p. 72.
- 14)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 本文, 1927, p. 40.
- 15) 翰苑蕃夷部高麗條 「… 佩刀礪 而見等威 金羽以明貴賤 …」
- 16) 梁山夫婦塚と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册, 朝鮮總督府, 1927, 本文 p. 43.
- 17)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60-4, 東京: 日本考古學會, 1975, p. 48.
- 18) 皇南大塚Ⅱ(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 77.
- 19)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册, 朝鮮總督府, 1931, pp. 29-30.
- 20) 大正七年朝鮮古蹟調査報告, 第1册, 朝鮮總督府, 1921, p. 9.
- 21) 皇南大塚Ⅱ(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 77.
- 22) 達城 飛山洞 37號墳 第Ⅱ槨의 被葬者도 槨과 같은 남자로 추정하였고 양산 부부총 중 婦人 遺骸가 가까이 에서 발견된 조우관은 원래는 夫君의 관이었는데 부인 遺骸쪽으로 이동해 갔으리라고 발굴자는 보고하였다.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本文 pp. 42-43.
- 그런데 이은창은 이를 반드시 믿어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틀림없는 婦人의 관모로 보고 있다.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 207.
-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發掘調査報告, 1974.
- \_\_\_\_\_,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 \_\_\_\_\_, 皇南大塚Ⅱ(南墳)發掘調査報告書, 1994.
- 尹世英,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관하여 -古墳出土 冠帽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17號, 1974. 12.
- 24) 金文子, op. cit. p. 73.
- 25) M. I. Artamonov,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ova, London: Thames & Hudson, 1966, p. 22, plate 3.
- 26) 앞글. p. 28, plate 27.
- 27) S. I. 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0, pp. 96-97, Plate 65.
- 28) 앞글. p. 248.
- 29) 金文子, op. cit. pp. 74-75.